



(주)나나기계

## 최고만이 무한경쟁에서 존립

철저한 사후관리 · 요원 정예화

국내에서 처음으로 PET BAND(STEEL BAND대용으로 고강도임)를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올려 외화를 절감하게 한 (주)나나기계(대표 여영섭)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공장자동화전에 출품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PET+PP 밴드 겸용 포장기계(모델명 KZV311)는 세계적 포장기계메이커인 독일의 MOSCA사와 기술제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 조립을 시작하여 국산화에 이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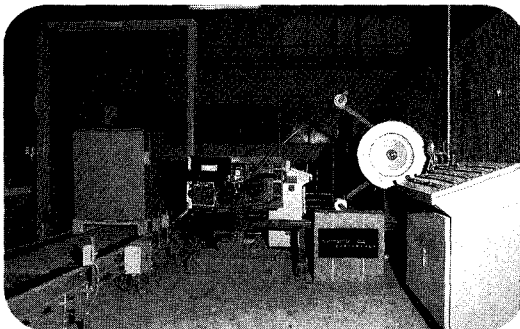
이 기계는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나나기계의 국산화로 외화절약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후관리의 애로와 소모부품의 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주)나나기계는 1987년 5월 니나화성으로 출발하여 PP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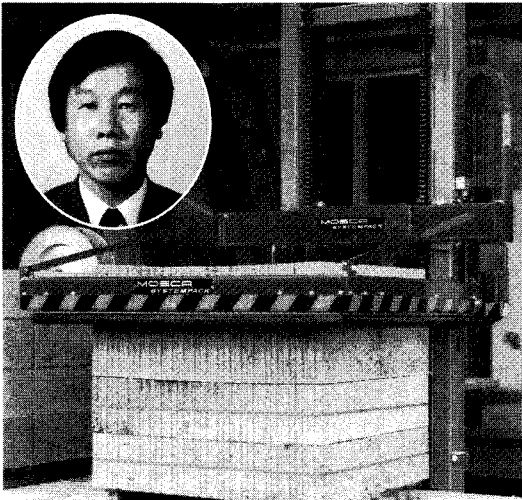
와 포장기계를 생산, 공급해 오던 중 기존의 국산 밴딩기계의 잦은 고장과 동종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산 등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나아가 국내의 한정된 시장을 탈피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 해외기술을 국내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판단, 오랫동안 선진 해외업체와 교류를 해오다 독일의 MOSCA사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다.

미국, 스위스, 이태리, 독일 등 여러 국가의 동종업체가 있으나 나나기계가 독일 MOSCA사와 손잡게 된 동기는 몇몇 업체의 경우 그들이 생산한 PET 밴딩기계에는 그 업체에서 생산된 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모순점이 있고 단계별로 국내에 기술이전을 쉽게 승인해 주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독일의 MOSCA SYSTEM PACK은 규격이 동일하면 어느 나라,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P와 PET밴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밴드 폭이 4mm까지, 두께는 0.35mm까지 사용할 수 있어 포장되는 제품의 상태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소모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대형 포장물인 CAN, 유리병, PET병, 제지, 화섬사, 벽돌, 목재, 합판, 파이프, 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합하며 고장율이 거의 없어



▲ 나나기계가 개발, 시판하는 PP+PET밴드 포장기



▲ 니나가 보급하는 SYSTEM PACK (왼내는 (주)니나기계 대표 여영섭)

무인 자동화라인에 적절하다.

니나기계는 95년 13억원을 들여 대지 1,000 평에 영국의 PLASTIC EXTRUDERS사와 기술제휴해 PET밴드를 양산체제화 시켰으며, 96년 10월에는 6억원을 재투자해 밴딩기계 제2 공장을 준공, 독일 MOSCA사에서 주요 핵심 부품을 도입하고 국산제작이 가능한 일부분을 자체 생산하여 연간 60~80대 정도의 양산체제를 갖췄다.

이 회사는 기술이전과 사후관리를 위해 독일 MOSCA사에 직원들의 연수교육을 시키는 한편 국내 조립에 대한 승인을 얻어 국산화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밴드의 주거래선(매입)은 삼양사, 동양나일론, 고려합섬,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공업등이며, 기계의 납품실적은 두산제관, 태양산업, 화성포장, 서릉산업등이다. 또한 일본, 미국, 구소련, 필리핀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다.

니나기계의 96년말 생산량은 연 1,000M/T, 97년 1,600M/T, 98년 3200M/T로 목표를 잡고 있다.

개발, 생산, 판매 등 전반적인 실무를 맡고 있는 신육경(전 재욱) 부사장은 25년동안 포장 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포장물류 및 자동화라인 설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국 각 지역별로 8개의 대리점을 구축하고 전국을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예요원 16명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환경문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등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여 매년 급성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니나기계는 "일등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여 사장의 경영방침아래 전사원이 일치단결하여 활기 넘치게 일하는 모습에서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니나기계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올해 후반기에 영국으로부터 압출기 1라인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포장기계의 완벽한 국내 이전을 달성하고 실소비자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해 생산, 영업, 대리점 직원들을 1차(6명), 2차(3명) 두차례에 걸쳐 독일 현지 연수교육을 시켰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전사원은 물론 전국 대리점 직원들까지도 정예화 요원으로 만들어 전국 각 소비자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

오선진 기자